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세요

광주시 오늘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평일 낮 시간대 안전신문고 앱 이용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잠시라도 불법주정차를 했다가는 주민 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시는 "3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강화하기 위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구역을 운영하고 주민신고제 등을 도입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 확대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단속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다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도록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난 6월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와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생명보호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주민신고와는 별개로 자치구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코로나 의료진에 간식 전달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은 최근 코로나19 선별진료소(광주 북·서구 보건소)를 방문해 응원의 마음을 담은 간식을 전달했다.

광주소방, 유관기관 합동 물류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4개 조사반, 8월20일까지 34곳 대상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 물류창고 화재로 13명의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냉동·냉장 및 택배 연관시설의 대형물류창고 등 화재안전사항과 제도개선 발굴 및 유사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지역 냉동·냉장 및 대형물류창고 3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반은 소방, 건축,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4개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소

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전기·가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 ▲비상연락체계 등 관계자 초동조치사항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이 기간동안 각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가정한 구조활동과 진압대책, 상황별 대응절차 및 문제점 등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훈련도 실시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법령상 물류창고에 쓰이는 외벽마감재 및 단열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우레탄폼·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료를 사용해 불연화 재료 사용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수거함 설치·기동반 운영 31일까지 휴가철 피서지 청결 관리

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휴가철 피서지 청결 대책을 추진한다.

임곡교, 송산유원지 등 시내 주요 피서지에 청소 인력을 배치해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한다.

'청소 기동반'을 운영해 피서지에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련 민원·신고에 신속히 대처한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 봉투 사용,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8월 24일부터 31일까지는 마무리 대청소를 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광주천 생태계 보호 6년째 지속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작업

광주환경공단이 6년째 광주천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31일 광주천 하류 및 영산강 합류부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광주천 하류에 분포하고 있는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외래식물을 제거했다.

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9회에 걸쳐 총 31톤에 달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광주천 보호에 앞장서 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날 행사에서도 1톤 가량의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했다.

이들 식물은 주로 광주천 둔치에 서식하면서 왕성한 번식력을 보이는 한해살이 덩굴식물이다. 가시박과 환삼덩굴은 주변의 고유 수목과 수풀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해 다른 식물을 고사시켜 생육을 방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유해식물을 제거해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이들을 방지하면 광주천에 자생하는 토종식물 성장에 방해가 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천의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해 꾸준히 생태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역사자료 수집

유은총동문회 및 동문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2021년 5월 26일에 100주년 기념관 개관에 맞춰 14만 동문들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0년사 연감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가족 및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및 교육 발간 책자

- 학교 교사(校史), 학교 요람, 학교연혁지, 교육계획서, 학교문집, 교육활동철
- 새교육 등 교육관련 각종 잡지, 학교 신문, 교지, 학교 발행 간행물 등
-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부교재 등

기록자료

- 사진, 회화, 앨범, 영상자료,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사진 및 자료
- 학교 배경의 개인 기념 사진이나 그림, 졸업 앨범 및 우승 트로피, 메달, 상장
-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시험지 및 답안지, 성적표, 통지표, 학교일지 등

학교 물품과 서류

- 졸업장, 수료증, 급여 봉투, 고지서, 영수증
- 학교 상징물, 교기, 교가, 교훈, 배지, 상장함, 깃발
- 각종 교구 및 기자재, 타자기, 초기형 컴퓨터, 환등기 등
- 운동회 용품, 호루라기, 매스게임 물품, 모의 수류탄 등

학생물품

- 교복, 체육복, 교련복, 이름표, 모자, 가방, 주산, 학생증, 교표, 도서관 대출증
- 도시락, 일기, 방학생활, 학급 문집, 동아리 문집 등
- 기타 자료 등

접수처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고) 행정실 062)670-451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32

광주동성고(광주상고), 광주여상고, 광주동성중, 광주동성여중

학교법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



광주복지재단과 청연요양병원(수원·서광주)이 최근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조선대학교(미술체육대학) 학생들과 취약계층어르신들에게 배포할 셀프 건강지킴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 어르신 건강체조 동영상 제작·배포

재가 노인 유튜브 통해 누구나 이용

광주복지재단이 청연요양병원(수원청연요양병원·서광주청연요양병원)과 공동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운동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2일 광주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30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셀프 건강지킴이 영상을 촬영했으며, 조만간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마련됐으며, 지역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셀프케어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동영상은 안구건강, 혈액순환, 관절건강(상하), 뇌건강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콘텐츠 구성과 촬영은 청연요양병원에서, 체조시연 모델은 조선대학교 미술체육대학에서 맡았다.

촬영영상은 지역 내 19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827명에 배포되며,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활용 가능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광주복지재단은 올 1월 1일부터 기존 돌봄 기본·종합 등 6개의 노인돌봄 유사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안전지원, 사회참여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복지재단은 광역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여가장소인 경로당과 지역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재가 어르신들이 우울감과 체력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함께 이번에 제작한 건강체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향상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서비스 마케터 30명 모집...19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이용 중 느낀 불편이나 개선사항,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기 위한 서비스 마케터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 마케터는 매일 정기적으로 각 역사와 전동차를 실재 방문, 시민의 눈높이에서 느낀 불편이나 건의 사항 등을 공사에 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인터넷 사용과 매월 역사 방문이 가능한 16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8월 19일까지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활동기간

은 오는 9월부터 1년간이다.

지원 희망자는 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www.grtc.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yj3277@grtc.co.kr)로 전송하거나, 각 역사와 객안내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역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광주도시철도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